

무궁화

- 제 9 호 -

KOREAN Students Association
Box 125 U of W

발행일 1978년 3월 13일

봄을 맞으며...

김상태

교정에는 은은한 향기를 피우는 산 등매이 피고 있습니다. 춥고 눅눅한 겨울이 어느새 남루한 옷 자락을 끌며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들은 학기중에 너무 바빠 변변히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채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 등포의 훈훈한 집을 어찌 잊고 지나치겠습니까? 비단 학생뿐 아니라 미국 생활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잊을 만큼 바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물질 문명과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 속에서서는 우리를 키워준 문화를 잊어 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4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우리 피속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봄을 맞아 웃음속에서 우정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와 등포애를 피속으로 나누어야겠습니다.

봄봄봄..의 정의?

- ① 봄 생명의 계절!
- ② 봄 사랑의 계절!
- ③ 봄 아지랑이의 계절!
- ④ 봄 공부안되는 계절!
- ⑤ 봄 시골 처녀 마음 설레는(?) 계절!

- 광고 -

3.1절 기념

민속예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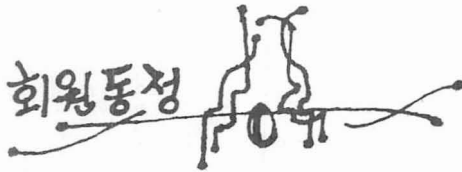
오는 3월 18일에 3.1절을 기념하고 한국 영사관의 개관을 축하하는 의미로 한국 민속무용과 노래를 보여주는 우리 민속예술회가 열립니다.

먼저 개최사와 국민의례가 있겠고 한인회장 한국 합창단의 인사에 이어 남 홍우 영사님의 인사가 있은후에 한국예술협회 부설 무용 연구소 생도일등의 무용과 한국합창단 단원 일등의 합창에 이어 다채로운 민속예술회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술회전 후에 학생회가 마련한 찬란한 Reception이 있겠으며 특히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이국생활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민속예술회를 재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주최 : 한인회, 한국예술협회
- 주관 : 한국합창단, 한국예술협회
- 후원 : 한국학생회, 기술자 협회, 한국무역관, 한국일보 지국, 외환은행 사무소, Tacoma 한인회 대한 부인회
- 시일, 장소 : 3월 18일 (토) 오후 2시 정각
University of Washington
HUB 1층 강당

우리는 한국사람
자랑스런 한국인이 됩시다



== 뉴스 ==

*** 한국영사관 개관**

*** 윤길용 학형 화축..**
윤길용 학형은 오는 3월 18일 오후 7시에 Federal Way에 있는 한인 선교 교회에서 신부 정중효양과 화축을 밟습니다.
주소는 515 South 312 Federal way이며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회원 신주소록**

- 이 봉천
917 James st. Apt. #31
Seattle, Wa. 98104
- 황 석만 (522-9514)
6151 N.E. Redford St.
Seattle, Wa. 98115
- 구 해서 (543-8216)
216 Mercer Hall Park Way
Seattle, Wa. 98195
- Christine Kim (543-8216)
615 McMahon Hall U. of W.
Seattle, Wa. 98195
- 김 경미 (367-1241)
847 N.W. 64th
Seattle, Wa.
- 함 명식 (632-9223)
4005 15th N.E. Apt. #104
Seattle, Wa. 98105
- 함 영근 (522-2340)
6307 N.E. Radford dr.
Seattle, Wa. 98115

Seattle, Washington에 한국 영사관이 새로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Down Town United Airline Building의 11층 25호실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영사관은 지난 2월 27일의 임시 개관식에 이어 4월 초에는 정식으로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며 아름다운 우리 태극기를 위주로 아담하고 깨끗하게 단장된 사무실에서는 남흥우 영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Seattle의 한인사회의 발전과 교포들의 편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6) 682-0132

*** 3.1절 기념식 갖다**

1978년 3월 1일 7시에 Down Town에 위치하고 있는 한인 영사관에서 3.1절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인회 총무이신 이형상 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민족의 얼을 끈질기게 느끼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더불어 끝으로는 만세삼창을 부르면서 뜻깊게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기념식후 영사관 측에서 마련한 간단한 Reception이 있었습니다. (참고 : 59주년 기념식)

자동차 고장은

101 AUTO 허남일 REPAIR



TOYOTA
DATSUN
MGB
VOLKSWAGEN

FOREIGN & DOMESTIC
NAM-IL HO



BUS. 525-5778
RES. 789-2655

10059 AURORA N.
SEATTLE, WASHINGTON 98133

"ALL MAJOR & MINOR WORK DONE"

* Save Comittee

Ray 지사 만나다

지난 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Korean Literature Save Comittee 대표들과 학생회 대표들은 Dixy Ray 지사를 방문하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의 한국문학 교수직 부활에 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Ray 지사는 약 1시간 동안 한국문학 강좌가 U.W에서 부당하게 폐지된 경위를 이틀 대표로 부처 경청하고 매우 유감된 뜻을 표하였습니다. 한미 관계의 여러가지 측면서 등 강좌가 반드시 부활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덧붙이며 수일내 Hogness 총장과 이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주선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이날 Comittee 대표로는 전계상, 신호범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현기 서두수 박사님 계서 학생회 대표로는 김상래 김영희, Tim Phelan 씨가 참석하였고 조병우 한국일보 기자도 동석하였습니다.

* F. I. U. T. S.

'Growing Up in the Far East' 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대표 6명이 각국의 풍속과 생활을 소개하는 Semina가 지난 1월 22일 Ethic Cultural Center 에서 열렸습니다. F. I. U. T. S.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ough Students)의 주체로 열린 이 Semina에서 김상래씨 김영희씨가 한국의 문화 생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견해 생활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30~40명이 참가한 이 토론은 미국인과 특히 유학생의 Host Family에게 동양의 풍속 문화를 소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77년 연말잔치 "

성공리에 끝마치다.

1977년 12월 28일 학생회 주최로 Black Memorial Hall에서 개최되었던 연말 잔치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후 8시경 부터 시작된 잔치는 학생들이 성의껏 마련한 저녁식사를 맛있게 끝마친 후에 한국 어린이들의 특별교전무용 순서가 있었고 대학원생과 대학생들간의 Game 등 다양하게 짜여진 Program 외 기대 이상의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1시반 경에는 아쉬운 마음으로 내년 연말 잔치를 기다리며 끝마쳤습니다.

오대양 식품점
FIVE SEAS

- Food Stamp 취급 • 주문배수
- 월간 잡지 취급

* 영업시간: 월~금 (10:30 ~ 7:00)
토~일 (10:30 ~ 6:00)

543 N.E Northgate Way, Sea. wa. 98125
Tel. 365-9844. 525-2985

씨아들 한국여행사
Korea Travel Service

모국방문 특별할인, 국제 국내 항공권판매
가족초청 및 제반여행 수속대행

이	규	영
LEE	KYU	Y.

Tel. (206) 623-9290 (Office) 1928 Second Ave.
(206) 322-3782 (Home) Seattle Wash. 98108

ISLAND SPRING
TOFU
traditionally prepared tofu from
organic stoneground soybeans

알림

◎ 종강 체육대회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부터 I.M.A.에서 한국학생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선체육대회가 학생회의 주최로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체육대회를 기해서 <대 학원생과 대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들 간의 멀었던 거리를 좁혀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종목과 법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구.
대 학원생 대 대학생 (2명의 여학생 포함)

② 배드민턴
단식, 복식 (여 학생 포함)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들 열전분투 하시길 바랍니다.

◎ 여름 모국방문

한국 문교부에서는 오는 7월 20일 부터 3주간에 걸쳐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을 한국에 초청하여 관광과 함께 한국에 관한 세미나를 갖는다고 합니다. 왕복여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나 한국에서 머물동안의 모든 비용은 문교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희망자는 3월 20일 까지 학생회장 김상래 씨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525-3082 로 연락하시면 김상래 씨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 Potluck Picnic

오는 5월 초순경 학생회와 학인회 공동 주최로 Potluck Picnic 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는 미정이며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특별 강연회

1978년 제 1차 학생회 주최 강연회가 4월 21일 U.W HUB에서 열립니다. 이 강연회를 통하여 이곳 U.W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연구주제를 듣고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Topic과 연사가 결정되는 대로 연락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International Week Festival

매년마다 있는 International Week festival 이 올해에는 5월 첫 주일에 열립니다. Commission International Students 의 주체로 여러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즉 외국영화 상영, 민속 예술 소개, International Bazaar (공예품 전시회)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속 공예품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예술과 역사를 알리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모두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끝을 마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 태권도 Demonstration

Yun's Martial Art School의 관장이신 윤학덕 씨는 오는 4월 초순경쯤 Hub Ballroom에서 demonstration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라며 특히 이 기회로 우리나라 무술인 태권도가 외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 합니다.

무엇이 슬프다 하여도
마음이 죽은것 처럼
슬픈것은 없다



독거 안내

따스한 봄빛속에 우리의 교양을 펼쳐 볼까요

- 서장주 에세이
「내 영원은 물빛 라일락」
- 정연희 최신 창작집
「꽃을 먹는 하얀소」
- 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 한국전쟁 소설 9인집
「오리와 계급장」
- 이정환 소설집
「순자야 문 열어라」
- 한국인의 인간관
「한국 교육 개발원 전편」

<동양 도서관 (U.W) 소관중>

미니 인터뷰

1. 미국온 이후 가장 감격이 컸던 일은?
2.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첫눈으로 알아볼수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3. 다음학기에 학생회에 바라는 것은?

1. 한국에서는 상이과도 받아서 감격하였지만 여기서는 그런것도 없고해서 감격할 일이 영
2. 특이한 것은 없지만 첫눈에 알아볼수있다. (같은 핏줄인데 몰라 볼수가)
3. 앞 걸음질은 해도 뒷 걸음질은 하지 말것을.
<노정쉬, 1년>

Donation

이번해 학생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분들께서 성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의를 표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금을 보내주신 분들>

남홍우영사	100	불
오대양	50	불
구범희씨	50	불
정하경목사	50	불
안성진목사	50	불
이창희씨	50	불
이차영씨(한국여행사)	50	불
김연조씨(외환은행)	50	불
김철준씨	50	불
김현중씨	50	불
이만득씨	50	불
나성삼씨(아리랑)	40	불
전계상씨	30	불
조병우씨	30	불
김창성씨	20	불
유영석씨	20	불
노명제씨	20	불
이선복씨	30	불
한국식품점	30	불
Fred Lukoff	25	불

● 특별히 인색을 맡아주셔서 학생회보의 결실을 보게 해주신 이문세 씨께 감사드립니다.

편집후기 ...

차갑던 겨울바람도 따스한 봄바람이 밀려가버리고 캠퍼스 누런 잔디도 파릇파릇 새싹을 입으며, 숨었던 꽃 봉우리도 하나둘 피어오는 새봄과 함께 생동치는 우리들의 숨결.. 우리의 따듯한 정도 봄바람이 실어옵니다.

* 회보 편집위원 연락처 362-6748 (황재형) 543-7850 (양승관)

1.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자가용으로 모시는 일에 과연 감격!
2. 옷차림을 보면 척!
3. 좀더 자주만나서 즐겁게 지냈으면....
<윤재선, 1년>